

노동부장관,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관련 사고수습 철저 긴급지시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'26. 6. 1.(월) 10:59분경(신고) 대전 유성구 소재 무기제조사업장 내 56동 세척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*와 관련하여,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고, 신속한 사고수습을 긴급 지시하였다.

* 원인 미상의 폭발 및 화재 발생(추정)

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고용노동부 본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
 -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
- ② 사고 발생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(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장) 및 노동 감독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
- ③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, 동 사고에 대해 신속 하고 엄정히 감독·수사

김영훈 장관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며, “신속하고 엄정한 사고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 전 보 건 감 독 국 화학사고예방조사과	책임자	과 장	손성길 (044-202-8965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훈 (044-202-8968)
담당 부서	안 전 보 건 감 독 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배영일 (044-202-8901)
		담당자	서기관	온남이 (044-202-8902)
담당 부서	안 전 보 건 감 독 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	책임자	과 장	이경제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	정해엽 (044-202-8953)